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적 존재이다. 생명적 존재가 자기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계사물과의 연대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구성하는 추진력으로서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적 존재인 인간이 존재태로 현상하는 한 에너지의 상승적 충동은 인간내면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상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동일성을 획득하거나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결핍이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활동이 욕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욕망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인간의 자기보존이라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론과 결부되어 있으며 욕망은 인간의 내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지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에 있어 욕망의 문제를 증산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욕구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말하며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이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 행위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욕구는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띤다. 여기에서 인간감정은 충족하지 못한 불만족의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한(恨)과 원망(怨望)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한을 개인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로 규정하고 원을 집단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들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가 표출되는 방법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곧 욕구 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상호 규정성이며, 표출되는 행동양식은 인간과 외계 사물에 두루 미치는 것이다. 증산은 이러한 인간정서의 불만족상태에 대한 근본원인을 원(冤)이라고 한 것이다. 원에는 인간과 외계사물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불만이 상징적으로 내재된 표현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에 두루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증산의 입장이다. 이의 해결이 그의 종교적 화두이며 행로였던 것이다.

핵심 주제어: 인간, 욕망, 자아완성, 정서적 결핍, 한(恨), 원망(怨望), 해원(解冤)

I. 논의의 초점

존재론적 측면에서 인간존재의 삶의 양식에 바탕한 욕망은 그것이 단순한 욕구충족의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을 모두 주관성으로 이해한다. 그가 말하는 주관은 생명의 이념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생명 개념으로서의 주관 또는 주체는 욕구 또는 욕망으로 환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간직하는 충동은 타자존재를 지양하여 진리를 획득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¹⁾ 다시 말하면, 생명적 존재가 자기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외계사물과의 연대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추진력으로서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생명적 존재가 존재대로 현상하는 한, 에너지의 상승적 충동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상존하는 것이다.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거나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결핍이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활동이 욕망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망은 목적론과 결부되어 있으며 욕망적 존재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지향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본래적 인격이 결핍된 지향성으로서의 욕망을 증산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양적 전통의 한(恨), 원(怨), 원(冤)의 정서 상태에 대한 개념규정과 아울러 이러한 정서적 결핍 또는 불만족 상태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증산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며 분석하고 있는지를 욕망의 목적론과 결부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이상적 인간상과 세계관의 형성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증산 사상에 있어서의 욕망의 문제를 그의 인간관과 결부하여 탐구해 볼 것이다.

인간의 이해에 있어 욕망의 문제는 심리학적 용어인 욕구와 더불어 의미구분을 하기도 한다. 주로 생물학적 욕구와 그 해소과정을 욕망담론의 대상으로 했을 때, 욕구와 구별하여 의식이 개입된 고차적인 상태를 욕망으로 이해한다. 욕망과 욕구를 의식과 관련하여 구별하는 고전적인 예는 스피노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욕망(cupiditas)은 의식을 동반하는 욕구(appetitus)”²⁾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인간의 측면에서 의식을 수

1)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3), p.480.; 박만준, 「욕망의 역사성2」 『대동철학』 제28집(부산: 대동철학회, 2004), 171-173쪽 참조.

2) 문성원, 「생산하는 욕망과 욕망의 딜레마」 『코기토』 제64집(부산: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8), 63쪽에서 재인용.

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대개는 영어의 ‘desire’를 욕망으로, ‘need’를 욕구로 각각 번역하여 통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산사상을 탐구하기 위한 텍스트로 전경을 사용하기로 하며 전경상의 용어를 직접 인용하는 바, 욕구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또한 욕망이라는 용어를 스피노자의 정의에 부합하여 해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욕구와 욕망을 혼용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며 서두에 밝힌 바,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거나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결핍이나 결함을 해결하기위한 자기활동의 의미로 욕망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현대 과학적 전문용어인 욕구가 인간행위의 방향성과 행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정의된다는 가설 아래 증산이 사용한 욕망이라는 용어를 욕구라는 용어로 환치하여 사용할 것이다.

II. 욕망의 다양한 해석들

생명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의 소멸이라는 유한성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인간존재의 유한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무감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이것을 넘어서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게 마련이다. 생존욕, 성욕, 권력욕 등 삶을 살아가는 의지와 원동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이른바 ‘욕망’이 그것이다.

욕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일체의 생명활동의 원천이며 열정이다. 살아 있는 생명적 존재만이 욕망하며, 그러기에 그 욕망에는 결코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현상적 욕구의 충족은 곧 새로운 상위 개념의 욕구를 회구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의 상승적 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쾌락을 넘어서』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라고 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 실존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정이 여기서도 성립하는 것이다.

동양에는 본래 욕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서양의 ‘Desire’를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인 듯하다.³⁾ 국어사전⁴⁾에 따르면, 욕망(欲望)은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 마음. 부족함을 느껴 이를 채우려고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욕망이란 무언가를 좋아하고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상태라 볼 수 있다.⁵⁾

욕망은 다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욕망을 사회과학적 해석방법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욕망담론을 명확하게 수립한 최초의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에로스를 통하여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욕망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 바,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3) 이강수·허우성 외 공저, 『욕망론:철학과 종교적 해석』(서울: 경서원, 1995) 참조.

4) 민중서림 편집국, 『국어사전』(제5판), (서울: 민중서림, 2005)

5)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2008), 249쪽.

시작해서 영혼과 이념에 대한 사랑으로 한 단계씩 차례로 고양되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의 욕망이 정화되고 승화되어야지만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파이돈』에서는 몸과 욕망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욕망의 억압이 노골적으로 표출된다.⁶⁾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하나의 욕망덩어리’라는 표현을 통해 고뇌와 비참함과 함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욕망을 이해하고 있다.⁷⁾ 이처럼 욕망을 금욕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과는 달리 욕망의 해방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욕망이란 생명이 어떤 행위를 완수하는 운명을 가진 것이라 생각되는 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라고 하고 있으며,⁸⁾ 빌헬름 라이히는 인간의 욕망을 공격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화적이고 남에 대한 존중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폭력과 사악함은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⁹⁾

한편, 심리학에서는 욕망이라는 용어보다 욕구 또는 동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욕구(need)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상태를 의미한다. 욕구는 방향성을 지니며, 행동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는 욕구와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욕망에 비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좀 더 분명하게 구체화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내면적 상태를 의미한다.¹⁰⁾

생리학에서는 개체고유성(individuality)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욕망에 접근한다. 사람은 생명체이다. 즉, 생명현상을 지닌 물체로서 생명체, 생물 등으로 일컬어진다. 생명체의 특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개체고유성이다.¹¹⁾ 자아를 이루는 욕망의 발현형태인 개체고유성은 물질 수준에서 담당하는 두 축으로서 신경계와 면역계¹²⁾에 의하기 때문에, 욕망은 생체내의 정교한 이 두 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욕망의 가시적 발현을 신경계가 한다면 욕망을 미시적으로 체화된(micro-embodiment)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면역계이다.¹³⁾ 이렇게 신경 및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 이에 대한 반

6) 조홍길, 『욕망의 형이상학과 그 새로운 가능성』 『대동철학』 제35집(부산: 대동철학회, 2006), 255-269쪽.

7) 김정현, 『죽음은 삶의 목적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서울: 산해, 2005), 130-131쪽.

8)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서울:세종출판사, 1997), 17쪽.

9) 박찬국,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2008), 187쪽.

10) 권석만, 앞의 글, 249-251쪽.

11) 우희중, 『동물의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295쪽.

12) 신경계와 면역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아/자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통합된 개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양학문에서는 그동안 신경계가 담당해온 정신적 자아에 대해서는 주로 철학이, 신체적 자기에 대해서는 의학의 한 분야인 면역학이 다루어 오면서, 정신과 육체의 철저한 이분법적 해리(解離)가 이루어져왔다.(우희중, 위의 글, 297쪽.)

13) 우희중, 같은 글.

응, 그리고 기억 기능에 의하여 완성되며, 신경계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자의식을 만들어가듯이 면역계 역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신체적 자기에 대한 자신만의 특이성을 창발적으로 형성해 간다. 이처럼 개체고유성과 연관된 자극, 반응, 그리고 기억 중에서 특히 시간의 누적과 연관된 기억 작용은 욕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자는 이상에서 논의되어진 욕망에 관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특히 욕구(need)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욕구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며,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상태를 말한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욕구는 인간행위의 방향성과 행동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욕망의 다양한 관점 중 욕구(need)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Ⅲ. 인간의 욕망과 자아

인간은 ‘욕망’한다. 욕망은 결코 ‘악’아니다. 그러나 악을 낳게 한다. 지향하는 바가 ‘선’일지라도 말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선을 지향함에도 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다. 인간은 신체적 활동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며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정신적 활동을 관장하는 신체와는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¹⁴⁾ 인간은 마음에 의해 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므로 몸의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변화 속에 놓인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¹⁵⁾

그렇다면 몸과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신체적 활동이 정신적 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¹⁶⁾ 이처럼 몸과 연결되어진 마음은 그 반응 양상에 따라 ‘지각하는 마음(mind of perception)’과 ‘생각하는 마음(mind of think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지각하는 마음은 일종의 조건반사형태를 띠는 것으로 구체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14) 김영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14쪽.

15) 최봉영, 『주체와 욕망』(서울: 사계절, 2000), 71쪽.

16)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것들인 신체와 마음 두 가지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의미에서 이 원론이며, 이 별개의 것들인 신체와 마음이 상호 인과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에서 상호 작용적이다.(김영정, 앞의 책, 14쪽.)

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생각하는 마음은 관념적 방식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실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¹⁷⁾

한편, 인간이 지각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것을 ‘욕구(need)’라고 부르며, 생각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것을 ‘욕망(desire)’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지각과 생각이 공동으로 의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을 통합하여 ‘욕심(wanting mind)’으로 부른다. 인간은 지각과 생각이 통합된 ‘욕심의 주체(subject of want)’¹⁸⁾인 것이다.

욕심의 주체인 인간이 욕망하는 실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욕심의 주체’라는 표현 속에는 ‘나’와 ‘나 이외의 것’이라는 경계지음이 존재한다. 이는 ‘나의 것’과 ‘나 이외의 것’으로 경계지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경계가 나눠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결핍 또는 결여의 내용을 외연의 경계에서 충족하려는 욕망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계를 확장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지속적으로 경계를 확충하게 되며, 새로운 경계지음을 창출하고 또 허물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게 된다. 결국 인간은 내가 지니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을 통해 무수히 경계를 짓고 경계를 허무는 반복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차이와 결핍에서 비롯되는 바, 차이와 결핍에서 비롯되는 욕망의 세계는 권력과 지배를 겨냥한 비교와 경쟁과 투쟁의 전투장일 뿐이다. 욕계(欲界)는 무수한 경계들 주위에서 무수한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투쟁하는 기의 싸움터이고 욕망의 전쟁터이며 다양한 힘이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고 투쟁하여 강자가 승리하고 약자가 패하게 되는 약육강식의 터전이다.¹⁹⁾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다양한 욕망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욕망의 성취는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다시 말해, ‘나’의 경계의 확대는 새로운 경계확대로의 욕망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욕망을 충족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긴장관계 속에 놓여지게 된다. 증산은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교법3-24)²⁰⁾라고 하여 심성적(心性的)

17) 최봉영, 위의 책, 73-74쪽 참조.

18) 최봉영, 위의 책, 75쪽.

19) 한자경, 『욕망세계의 실상과 그 너머로의 해탈』 『욕망: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2008), 81-82쪽.

20) 대순진리회의 소의경전인 전경의 인용은 ‘전경,편명,장-절’로 표기하나 여기서는 경전의 인용이 전경뿐이므로 전경의 서명은 생략하고 ‘편명 장-절’로만 표기한다. (예: 전경, 교법 3장24절 → 교법3-24; 예시1절 → 예시1)

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교법3-29)라고 하여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성과 의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긴장관계 속에서 반격이 불가능한 약자는 ‘원한’이라는 정서현상으로 표출되게 된다. 또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표출되게 된다. 이때 표출되는 감정들이 원(怨)·한(恨)·원한(怨恨) 등인 바,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IV. 대순사상의 욕망해석과 지향점

인간이 지니는 욕망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는 한(恨)·원(怨)·원(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어령은 “원(怨)은 곧 주로 타자에 대한 것 또는 자기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며, 한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마음이며, 자기내부에 쌓여가는 정감이다”²¹⁾라고 하였으며, 고은은 “원은 굳이 말한다면 대상이 있고, 한은 구체적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단념한 무형문화의 감정이다.”²²⁾라고 하고 있다.

원이 대타적(對他的) 공격성이라면, 한은 대자적(對自的) 공격성이다. 좌절·상실에 즈음하여 먼저 그 유인자를 향하여 품게 되는 감정, 그것이 대타적 공격성으로서의 원이며, 그럼에도 그 유인자에 대한 보복·반격을 가할 만한 힘이 없음을 자각한 데서 연유되는 무력한 자신에 대한 탄식, 그것이 대자적 공격성으로서의 한이다.²³⁾

여기서 한의 특이점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은 자기내부에 쌓여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서적 불만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이 체념에서 끝나지 않고 원으로 전이될 수 있다. 즉, 체념하고 있던 개개인이 집단을 형성해서 체념 → 원망 → 증오 → 저주 → 복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의 한이 이런 과정을 거쳐 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력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한이 원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집단을 이뤘을 때, 원으로 표출되는 개연성이 더 많은 것이다. 따라서 원은 일정부분 집단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가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을 개인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로 규정하고 원을 집단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들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가 표출되는 방법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곧 욕구 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상호 규정성이며, 표출되는 행동양식은 인간과 외

21)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년 9월 23일자.

22) 고 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恨의 이야기』(서울: 청노루, 1984), 58쪽.

23) 천이두, 『한의 구조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22쪽.

계 사물에 두루 미치는 것이다.

한편, 인간 욕망의 불만족 상태에서 나타나는 원, 한과는 달리 증산은 원(冤)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욕망에 접근한다. 원에는 인간과 외계사물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불만이 상징적으로 내재된 표현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원에는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탄의 감정(恨)과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원(怨),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되는 척(慼)의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다 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에 두루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증산의 입장이다.

상계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1-3)

원한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 정서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편적 정서로 작용하고 있는 원한은 그 맺고 풀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원한을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역사가 원과 한으로 점철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선천의 현실을 상극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원의 근간에는 대소과다의 차이에 관계없이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원(冤)의 발생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전제된 것인 바, 원은 욕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산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인간실존의 결핍상태를 해소하여 온전한 자아동일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의 해원(解冤)이다. 나아가 해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인 삼계의 모든 존재들의 원을 푸는 대공사(大公事)이다. 달리 말하면 욕구에 대한 근원적 해소의 방법인 것이다.

증산은 선천을 판단함에 있어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예시8)라고 하여, ‘원한’이 이 세계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선천은 상극지리에 의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참혹한 진멸지경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상을 변혁하고자 증산

은 개벽으로써 상생지도를 운행하고자 하였다. 상생의 운행원리는 상극상이 벌어지게 된 시초를 문제삼아 근원적 해결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시초가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한이 맺힌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²⁴⁾이다. 이러한 원의 종자가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것이니, 파멸에 빠진 인간을 건져서 포원(抱冤)을 해소시키고 본래적 인간 심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해원인 것이다. 즉 증산은 천·지·인 삼계의 대권을 갖고 인간과 신명의 세계에 누적된 원한을 본질로부터 해소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한 해소의 내용은 왕후장상의 뜻을 펴지 못한 동학신명의 해원²⁵⁾, 후사를 두지 못한 중천신(中天神)에 대한 해원²⁶⁾ 등 신명계의 해원과 더불어 사회제도와 신분계급 등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야기된 불평등한 원한을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원에 대한 증산의 주체적 종교행위의 이면에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거나 신명을 조화하는 질서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증산은 천지공사라 명명하고 있는 바, 증산에 의해 수행된 천지공사는 모순된 사회 현실의 주체적 변혁을 통하여 신질서의 이상향인 후천의 선경을 지상에 구축하고 기층민을 광구하는 종교적 목적실현의 대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는 종교적 변혁을 감행한 증산의 종교적 행위는 상극에 지배된 진멸지경의 참혹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현실적 모순의 해결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세계의 개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의 개조는 인간과 신명의 심층적 내면으로부터의 자기변화가 필요한 것이다.²⁷⁾

한국인의 의식세계에는 해원이념이 깊게 잠재되어 있다. 즉, 한국인의 의식일반을 비롯 한 영혼관, 내세관 그리고 종교적 심성 등에는 해원이념이 어떠한 형태로든 깊게 깔려있다. 이러한 해원의 정서를 기반으로 생성된 한국신종교의 공통사상인 개벽과 지상천국사

24)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풀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공사3-4)

25)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았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공사2-19)

26)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는 말씀을 상제로부터 들었도다.(공사1-29)

27)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73-75쪽.

상 등은 맺힌 한을 풀려는 해원이념의 표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증산은 모든 공사에 해원이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광구천하가 증산의 대의라면 해원이념은 광구천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원은 후천선경건설이라는 종교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육구해소의 지향점은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상세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81)

원으로 점철된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증산의 의지에 의해 나타나는 후천선경은 만민평등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사회·종교·문화적 갈등이 해소된 종교적 이상세계이다. 이러한 후천선경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을 대순사상에서는 인존으로 집약하고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는 선령신의 공덕으로 태어난 존재로서,²⁹⁾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神明계와의 유기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신종교 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인간 존엄성의 기본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관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인간 이해에 대한 파격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곡의 사회모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던 기층 민중들에게는 자존의 질서를 재정립케 하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존의 인간관념으로 구현된 것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2-56)

증산은 한국인들이 가지는 전통적 세계관인 천지인의 위계질서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하늘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와는 달리 인간에 의해 일이 성사되는³⁰⁾ ‘인존시대’임을 설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학이 천지인이라는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인식의 틀에서 하늘과 인간을 동격화 시킨 것³¹⁾에 비해 오히려 인간을

28) 노길명, 『한국신종교연구』(서울: 경서원, 1996), 57쪽 참조.

29)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교법2-36)』

30)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라.(교법3-35)

하늘보다 더 높이 뚫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존을 강조하면서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른다”(교법1-25)고 가르친 증산의 설법은 선천에서처럼 모든 권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신망의 근본이 인망임을 밝힘으로써 인존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인존은 천존·지존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주심이 투영된 소우주로서 심(心)·신(身)·신(神)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존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산의 인간형성 이론은 천심즉인심, 인내천, 사인여천 등에서 보이는 인간지상주의적 관점³²⁾에서 더욱 발전하여 심·신의 균형, 신·인의 조화를 견지하여 인간과 외계사물의 동체주의적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 크다’고 하는 창조적 자기 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게 하여 주체적 자발성과 사상·사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사고에서 올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격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心)·신(身)·신(神)의 균형있는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³⁾

V. 결 론

욕망은 열정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적극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열정적일 수 있다. 욕망은 대상을 전제로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건 상관없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상관이 없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오로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발생한다.³⁴⁾ 욕망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됨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쫓아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상을 전제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불만족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경계의 확장 후 또 다른 경계를 찾는 과정에서와 경계의 확장 과정 속에서 이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타자의 경계 확장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인간은 불만의 정서가 외부로 표출된다. 이것이 한(恨)·원(怨)·원(冤)의 형태인 것이다.

한은 개인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이며, 원은 집단의 정서적 불만족 상태이다. 이러한

31) 수운, 해월, 의암에 이르러 그간의 시천주 사상과 인즉천·사인여천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의암은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종지를 ‘인내천’으로 선포하게 된다.(노길명, 앞의 책, 113-131쪽 참조)

32) 이원호,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서울: 집문당, 1986), 286-288쪽.

33) 윤재근, 앞의 글, 18쪽.

34) 정세근, 『위진현학』(서울: 예문서원, 2001), 167쪽.

한, 원과는 달리 원(冤)은 한과 원 뿐만 아니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척(慼)의 의미까지를 포함한 본원적 불만족 상태의 원형으로 천지인 삼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원의 기저에는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욕망이 전제되어 있다. 원은 욕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누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증산은 원한이 이 세상이 진멸하게 된 원인이라 진단하면서 욕망에 대한 근원적 해소 방안으로 해원(解冤)을 제시한다. 그리고 원으로 점철된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증산의 의지에 의해 나타나는 종교적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을 욕망해소의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후천선경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을 인존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존은 우주심이 투영된 소우주로서, 심(心)·신(身)·신(神)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존재태인 것이다.

해깅 변증법의 기본 카테고리인 이른바 ‘자기소외’ 현상을 응용하여 표현하자면, 원(冤)에 의거한 정서의 본질적 불만족 상태를 ‘자기 종속’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주체는 자아이며 외연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자아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욕구의 충족 또는 해소를 하지 못하여 스스로 무한한 자유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것이 원이 쌓이고 쌓여 확대 재생산되는 원의 악순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종속 상태의 종속적 자아를 독립적 자아로 전환하거나 육성해 나가는 커리큘럼이 원의 근본적 해소인 해원이며 증산에 의해 감행되는 ‘천지공사’의 기저인 것이다. 이를 자아관념의 측면에서 보면, 해원된 ‘자아’ 개념이 곧 ‘인존’으로 상징되며 증산이 지향한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이상적 인간상인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민중서림 편집국, 『국어사전』(제5판), 서울: 민중서림, 2005.
- 고 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恨의 이야기』, 서울: 청노루, 1984.
-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서울: 세종출판사, 1997.
- 김영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 김정현, 「죽음은 삶의 목적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005.
- 노길명, 『한국신종교연구』, 서울: 경서원, 1996.
- 문성원, 「생신하는 욕망과 욕망의 딜레마」, 『코기토』제64집(부산: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8).
- 박만준, 「욕망의 역사성2」, 『대동철학』제28집(부산: 대동철학회, 2004)
- 박찬국,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우희중, 「동물의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이강수·허우성 외 공저, 『욕망론: 철학과 종교적 해석』, 서울: 경서원, 1995.
-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년 9월 23일자.
- 이원호,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 서울: 집문당, 1986.
- 정세근, 『위진현학』, 서울: 예문서원, 2001.
- 조홍길, 「욕망의 형이상학과 그 새로운 가능성」, 『대동철학』제35집(부산: 대동철학회, 2006).
- 천이두, 『한의 구조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최봉영,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2000.
- 필립 반 덴 보슈 저, 김동윤 역, 『행복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자작나무, 1999.
- 한자경, 「욕망세계의 실상과 그 너머로의 해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3.

원고접수: 2009년 10월 23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교육,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한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Dae-Soon Thoughts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Human is a life form which lives on. For a human to acknowledge one's own self-existence, it creates a connection with outer objects, and we can understand Desire as a factor which motivates the acknowledgement of self-identity.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trying to suffice the insufficiency in order to create self-identity and ego, is the Desire.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figure out how Jeung-San perceived and solved the problem of Desire. Desire speaks about unfulfilled inner state of human beings, and in this kind of state, one feels insufficiency rather than happiness and calmness. Thus the desire is a key which directs and controls the intensity of human being's deeds. On the other hands Desire has a characteristics of creating another Desire, which is then amplified. In this way, human's emotion shows insufficiency, and that is emitted in terms of Han(恨) and Won-Mang(怨望).

I will define Han(恨,resentment/regret) as a personal insufficiency for emotional comfort, and Won(冤,) as a insufficiency for emotional comfort for a group. The way people emit their own insufficiency may differ from person to person. So comes the definition of 'need' and 'desire', which defines each other. Thus the way the insufficiency is emitted will surely affect human beings and outer objects.

Won could be seen as the symbolic form of emitted insufficiency between men(subjects) and outer beings (objects). Jeung-San defines that this does not only apply for men, but also to the Three worlds of Heaven(天), Earth(地), and People(人).

Jeung-San believed that the root source of these dissatisfactions is Won(冤), and he tried to solve these insufficiencies in his way of religion.

Key Word : Human Being, Desire, Completion of Self-Identity and ego, Emotional insufficiency, Han (恨, resentment/regret), Won-Mang(怨望,grudge, reproach), Hae-Won(解冤, resolution of desire)